

SG550XG 및 SG350XG 스위치의 마스터 백업

목차

[목표](#)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버전](#)

[마스터 백업](#)

[마스터 실패/백업 전환](#)

[슬레이브 유닛 처리](#)

[장애 조치 후 원래 마스터 유닛 다시 연결](#)

[결론](#)

목표

스택을 작동하려면 마스터 유닛이 있어야 합니다. 마스터 유닛은 스택의 컨피그레이션을 처리하는 활성 유닛이며, 다른 유닛은 슬레이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스택 내의 유닛에서는 마스터 유닛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마스터 백업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SG550XG 및 SG350XG Series Managed Switch에서 스택의 유닛 장애와 그에 따른 마스터 백업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스터 백업의 전체 시간 데모를 보려면 아래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SG550XG

SG350XG

[소프트웨어 버전](#)

마스터 백업

마스터 실패/백업 전환

스택이 링 토폴로지에 있고, 유닛 1은 마스터 유닛이고, 유닛 2는 백업 마스터이고, 유닛 3과 4는 슬레이브 유닛으로 가정합니다. 링 또는 체인 토폴로지에서 마스터가 모든 지점에서 연결이 끊어진 경우 장치 2가 새 마스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스터 역할을 인계받는 백업 유닛의 이 프로세스를 스위치오버라고 합니다. 전환이 발생하면 백업 유닛이 마스터가 되고 모든 프로세스 및 프로토콜이 초기화되어 전체 스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 유닛으로 전달되는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슬레이브 유닛은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슬레이브 유닛 처리

백업 유닛이 마스터가 되면 활성 슬레이브 유닛은 활성 상태로 유지되며 원래 마스터의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패킷을 계속 전달하여 데이터 트래픽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백업 유닛이 마스터 상태로 전환을 완료하면 슬레이브 유닛의 컨피그레이션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하여 슬레이브 유닛을 한 번에 하나씩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 마스터 유닛에서 잘못된 컨피그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 조치 후 원래 마스터 유닛 다시 연결

전환 후 원래 마스터는 스택에 다시 연결하고 이전 역할을 다시 시작하여 새 마스터가 재부팅되고 다시 백업이 됩니다.

결론

마스터 백업 프로세스는 유닛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스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마스터 유닛에 오류가 발생하면 백업 유닛은 마스터 역할을 수행하며 마스터 유닛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이 전환은 마스터가 실패하여 전체 스택이 실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원래 마스터 유닛을 다시 연결하고 다시 마스터 유닛이 될 수 있는 반면, 백업 마스터 유닛에서는 원래 백업 역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슬레이브 유닛에 지장을 주지 않고 스택 내에서 토폴로지 변경이 간편해집니다.